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선택

장 석 주
시인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다. 어린 시절 그토록 책에 탐닉한 것은 심오한 뜻이 있어서기보다는 책이 재미있어서였다. 책에서 나오는 교향(交響)의 장엄함 속에서 내 영혼은 더욱 깊고 굳세졌다고 믿는다. 청소년기에는 친구 집의 다락방에서 구한 책들을 읽고, 전업 작가가 되어서 그 수입으로 생계를 해결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운 20대 초에는 시립도서관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책을 읽었다.

내 인생의 선택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책과 함께 한 삶이다. 내 행복의 조건은 책, 의자, 햇빛이다. 그것에 더해 사랑하는 사람들, 숲, 바다, 음악, 대나무, 모란, 작약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다고 믿었다. 책에는 가보지 못한 세계, 낯선 장소와 풍경들, 미지의 시간들이 있다. 책을 읽는 동안 나는 그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 지적 모험을 시작한다.

누군가는 책 읽기를 '눈이 하는 정신 나간 짓'이라지만 아무리 소박하게 보더라도 책 읽기는 항상 그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 우리는 책을 통해 세상과 '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구하고, 교양과 지식을 갖춘 지성인으로 성장한다. 책을 읽는 사람은 뇌의 시각 피질이 달라지고 문자나 문자 패턴, 단어 등 시각적 이미지를 떠맡는 뇌의 세포망이 채워져서 지적 자극을 효율적으로 신경회로에 전달하는 능력을 갖춘다. 또한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기쁨을 느끼고, 옳고 그름에 대한 윤리적 감각이 발달한다. 한마디로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한다.

공자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한다. 좋아하고 즐기는 것으로 이른 봄 종달새 소리, 모란과 작약 꽃들, 여름 아침 연못의 수련, 파초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 벗들과의 담소, 여인의 환한 미소, 동지 팥죽, 흰눈 쌓인 겨울 아침의 햇빛 환한 것들을 꼽는다. 그밖에 고전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는 것, 벗과 바둑을 두는 것을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 중에서 으뜸은 책 읽기다.

뼈가 약하고 살이 연할 때 나를 단련한 것은 책이고,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운 것도 책이다. 스스로 낙오자가 되어 시골로 내려와 쓸쓸한 살림을 꾸릴 때 힘과 용기를 준 것도 책이다. 평생을 책을 벗삼아 살았으니, 내가 읽은 책이 곧 내 우주였다고 말할 수 있다. 내게 다정함과 너그러움, 취향의 깨끗함, 미적 감수성, 올곧은 일에 늠름할 수 있는 용기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건 다 책에서 얻은 것이다.

내 인생의 큰 위기는 마흔 무렵에 왔다. 구속과 이혼을 겪고 시골로 들어왔다. 벗들은 멀어지고 생계 대책은 막막했다. 종일 저수지 물이나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새벽마다 노자와 장자, 그리고 공자의 책을 읽었다. 그 책들을 끼고 살며 마음의 고요를 되찾았다. '마흔은 인생의 오후, 빛은 따뜻하고 그림자 길어져, 걸음을 느리게 잡아당기면 곧 펼쳐질 금빛 석양을 기대하면서 잠시 쉬어가도 좋은 시간. 아침부터 수고한 마음을 도닥거리고 어루만지면서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평온하고 지혜롭게 사유하라. 그런 이에게 오후는 길고 충만하다'.(졸저, '마흔의 서재') 격류로 시작한 내 인생의 강은 어느덧 흐름이 느린 넓은 하류에 닿았다.

세상을 크게 이롭게 한 바는 없지만 삶을 조촐하게 꾸려온 이의 자긍심마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스무 살에 등단해서 쉰 해 동안 시를 쓰고, 방송에 나가 책 얘기를 하며, 매체에 글들을 기고했다. 독자에서 편집자를 거쳐 저자로 살아오며 기쁜 일도 궂은일도 겪고, 여러 풍파를 견디고 넘어왔다. 그동안 책이 준 혜택은 일일이 꼽을 수 없을 만큼 무량하다. 책 읽기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를 더 잘 인식하고, 영혼은 지식들과 융합하며 나는 사색하는 인간으로 성장했다. 나는 봉급과 수고에 매이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읽고 쓰며 밥벌이를 한 삶에 만족한다. 나는 '책 읽는 인간'으로 일관하며 살아온 것을 기꺼워한다. 그걸 내 자존의 고갱이로 여기고, 그걸 오롯이 보람과 기쁨으로 여긴 것은 그게 바로 내가 갈망한 단 하나의 삶인 까닭이다.

종교칼럼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최 현 열
광주 온교회 담임목사

어느 목사님이 본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는 중에 아주 큰 일이 닥쳤다고 한다. 목사의 아들과 장로의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동급생으로 여름 내내 보충수업 등의 이유로 방학 없이 지내다 한 주간의 짧은 휴식 시간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시골 할아버지 댁에 방문을 하였고 전날 큰 비로 불어난 강에서 그만 장로님의 아들이 익사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전화를 통해 들려 오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목사는 '이제 끝났다'라고 여기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고 한다. 목사의 아들은 무릎을 꿇고 죽은 친구의 아버지인 장로에게 울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죽은 학생의 아버지는 아들의 주검을 보며 '하나님이 천사가 필요해서 아들을 부르셨나 보다' 하며 아들 친구들을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드라마 치유를 공부할 때 실습시간 어느 목사님이 생각난다. 아직도 응어리가 남아있는 아픔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동생의 가족이 모두 죽었다고 했다.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다. 신앙심도 좋았던 동생 부부, 그날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가던 길이었고 가기 싫다는 딸을 깨워서 억지로 함께 가던 길이었다. 끝까지 짜증내며 집에서 잠을 자던 그 조카만이 무사한 상황이 되었다. 그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혔다고 한다.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임에도 그 아픔이 가시지 않아 입술을 떨며 말하던 그 모습이 생생하다. 그 아픔을 떨쳐 버리려 몸부림을 치는 그분에게 어떤 것이 위로가 될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많은 이들의 아픔을 경험한다. 목사의 일이 많은 이들의 아픔을 들어야 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위암에 걸려 전절제 수술을 하고 가장 뼈아프게 후회한 것은 아픈 신자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기도할 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다. 내가 위암임을 알기 바로 한 달 전에 교회 집사님의 남편이 위암 3기로 수술을 하게 되었다. 병문안을 갔을 때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위암은 완치율도 높고 사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고 힘내세요"라고 말이다. 그분의 두려움과 아픔을 전혀 모른 채 그런 말이 위로랍시고 했던 것이다. 내가 수술대에 올라 수술실로 들어갈 때 교회 장로님이 내 손을 꼭 잡아 주시며 이마에 입을 맞추어 주셨다. 어느것이 위로이고 공감인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니실 때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강했고 매우 많은 인파들이 모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큰 사고가 있었다. 예루살렘의 실로암 못에 망대를 설치하는 인부들 열여덟 명이 망대가 무너지며 죽게 된 것이다. 이 사고를 두고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이 성전에 바쳐진 돈을 빼앗아 실로암 망대 공사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며 떠들고 다녔다. 그러나 예수는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꾸짖으며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죽은 열여덟 명은 어떠하냐?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누가복음 13:4-5a, 우리말 성경)라고 말씀해 주셨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고 책임지게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이들의 죽음을 정치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데 급급하냐는 것이다. 사회적 저변이 아픔을 공감하고 통회하는 사회가 되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도자나 책임자는 스스로 통감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닌가. 아픔을 당한 이들의 가족 앞에서 울어 주고 원망을 들어 주면 된다. 때리면 맞고 멱살을 쥐면 잡혀 주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지도자의 책임인양 몸 둘 바를 모르면 그러면 된다. 회피하고 도망을 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 개역개정) 이 말씀이 사무친다. 유족들은 울고 있는데 왜 그들은 옆에서 싸우고 있는가.

기 고

'학교 밖 청소년' 공교육에서 포용해야

장 은 영
전남도의회 의원

2022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남의 초중고교생 18만 1977명 중 0.51%인 921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교육은 전남의 가장 큰 핵심 사업이자 지역 생존의 문제이다. 그런데 학교를 그만두고 쉬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제적·퇴학·자퇴한 청소년 또는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경제적·가정 환경·비행 등의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가리킨다.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산하는 공식적 통계는 없지만, 국가 교육통계센터 '학업 중단 현황' 자료를 통해 유추해 보면 약 4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 모두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 협력으로 교육을 받으면 좋겠지만, 민간의 영역에서 교육의 수요를 개인적으로 맞추어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고,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 생활 패턴이 달라 점점 대인 관계가 축소되기 마련이며, 안정적인 식사·학습의 기회가 일반 학생들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아진다.

따라서 적정한 시기에 교육적 도움을 받지 못하면 '위기의 청소년'에 놓일 개연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안 교육 기관 등 타 기관에서 배운 교육 과목을 '공교육 학점'으로 인정해, 공교육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첫째, 학생들이 사회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 밖 동아리 활동·자기 계발·문화 체험 등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 기관의 활동이 교육 학점으로 이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의무 교육 단계 학업 중단 학생인 초·중등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력 인증제를 통해 학습 경험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시수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 소속되어 함께 활동하여 소속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넓은 범위의 학습 경험 인정을 고려해 봐야 한다. 중복되는 지원 사업을 늘려 나가기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참여율과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참여 프로그램이 낮은 교육은 과감히 사업 재편하여 학생들의 호응도를 높여야 한다. 간혹 수학·과학 등 지루한 교과 과목이 싫어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에게 다시 그 과목을 지도받게 한다면 오히려 거부 반응만 일으킬 뿐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 교육, 직업 교육의 폭을 넓게 하여 학교 밖 학습 기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문제아·비행 청소년이라는 성인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을 청소년들이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 단순히 학교 안과 밖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다 같은 우리의 학생들이다.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비행학생으로 따가운 시선을 보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는 학생들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문제아가 아니라, 또 다른 학습을 선택한 청소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고사에 "1년의 계획은 곡식을,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평생 계획은 사람을 기르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다. 만약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하는 순간 개인과 가정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비용은 오롯이 국가의 책무로 돌아온다. 차별적인 인식과 편견을 버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가슴으로 청소년들을 품고 대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그들의 모습은 건실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학교 안이든 밖에서든 우리 청소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社 說

잇단 총파업…물류·급식 차질 최소화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광주·전남 지역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오늘부터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급식과 돌봄에 공백이 우려된다.

화물연대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는 어제 광주 하남산단과 광양시 광양항 국제터미널에서 각각 파업 출정식을 열고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이들은 광양항에서 대형 화물 차량으로 입구를 차단하며 컨테이너 등 물류의 진·출입을 가로막았다. 광주·전남에서는 40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조리 실무사·초등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도 오늘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에는 광주·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만 3000여 명 가운데 2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의 경우 빵·우유·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상황에 따라 단축 수업·돌봄 통합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했다.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최대 쟁점은 '안전운임제'다.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가 정부와 안전 운임제 지속 및 적용 품목 확대 추진에 합의했다. 한데 당정이 일몰제 연장을 제안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급식실 산업 재해 개선 대책, 정규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나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 등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정부와 노조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파업 단계별로 비상 대책을 마련해 물류 및 급식 차질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전남도립대 교직원 기강해이, 도 넘었다

전남도립대 교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 학교 허락도 받지 않고 공무 외 국외 여행을 가면서 '출장'으로 처리하거나 게스트하우스를 숙소로 쓰면서 학생들 기숙사 비용보다 저렴하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그제 전남도립대에 대한 정기 종합 감사에서 모두 45건을 적발해 13건은 신분상 조치, 32건은 주의·개선·기관 경고 등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도립대 직원 36명은 2019년~2021년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받은 뒤 개인 용무를 위해 근무지를 벗어나는가 하면 교수 등 여덟 명은 결재도 받지 않고 공무 외 국외 여행을 떠났다가 적발됐다. 또한 도립대 생활관을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하면서 교직원들에게 숙소로 일곱 개를 제공하고, 학생(4개월·2인실 45만 원) 보다 저렴한 비용(6개월·1인실 45만 원)으로 이용하게 했다.

특히 대학 측은 이미 폐과 승인을 받은 학과를 구조조정 대상에 편입시키면서 애초 대상 학과를 제외하거나 연구 활동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실적이 있는 것처럼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부당한 업무 처리로 전남도립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교육부의 일반재정 지원 대학에서 전국 7개 도립대 중 유일하게 탈락했는 데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전남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신입생 입학률 100% 달성, 재학생 충원율 90% 달성' 등의 방안은 도의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교육 현장은 다른 어떤 직업 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가뜩이나 부실 대학이란 이미지가 덧씌워진 상황에서 교직원들의 비위 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전남도립대는 총체적 위기 의식을 갖고 강도 높은 자정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無 等 鼓

화개장터

이름 앞에 관용적으로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라는 별칭이 붙은 단어가 있다. 화개장터이다. 이곳에 대해 잘 모르거나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영남·호남이 맞붙은 곳에 위치한 화개장터를 막연하게나마 지역 감정이 없고, 정이 넘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

화개장터는 지리산에서 시작한 화개천과 섬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영호남의 접경지에 위치해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 속한다. '하동군사'(河東郡史)를 비롯한 각종 기록을 보면 화개장은 1770년대에는 1일·6일 형식의 오일장으로 섰다가 1913년께는 2일·7일, 1928년부터는 다시 1일·6일로 바뀌었다고 한다. "옛적에는 화개장이 전국 7위의 거래량을 자랑한 큰 시장이었다"는 기록도 있다. 6·25 전쟁 이후 지리산의 빨치산 토벌 등으로 산촌이 황폐해지면서 화개장도 쇠퇴해 갔다. 당시 화개장터는 사라졌고, 지금은 화개면사무소 앞 쪽 화개다리 옆에 1997년부터 복원한 현대식 장이 오일장 대신 상시 시장으로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옛날에는 섬진강의 물길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삼아 영호남 사람들이 화개장에 모여, 내륙의 농산물과 남해에서 생산된 해산물 등을 교환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도 양 지역 주민들의 우의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영호남 사이에 교류가 일어나는 경우를 빗대어 '화개장터'라 부르기도 한다. 프로야구에서는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를 화개장터로 소개하기도 한다. 또 광주일보와 대구의 매일신문이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는 '영호남 문화대축전'에서도 영호남 시군의 농수축산품 부스를 화개장터라고 부른다.

'화개장터'가 최근 호남 상인이 없는 영남만의 장터가 될 뻔 했다. 74개의 점포 가운데 세 개가 구례·광양 상인의 점포인데, 관리 주체인 하동군이 3년 임대 계약 만료와 함께 입주 자격을 하동군 거주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 지역 상인들이 함께 장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과 영호남 화합의 상징성이 존치하기를 바라는 지역 언론의 지적이 이어지자 하동군은 호남 점포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하동군의 대승적인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채희종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